

□ 2011년 4분기 콘텐츠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7.4% 증가했으며,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4.4%, 5.7% 증가

● 콘텐츠산업의 '10년 1분기에서 '10년 4분기까지 각 분기별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이다가 '11년 1분기 -0.4% 약간 감소했으나, 2분기 이후 증가세를 나타냄

- 전체 서비스업 생산은 '11년 4분기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

※ '05년 100을 기준으로 '09년, '10년 및 '11년 연간 콘텐츠산업생산지수 120.0(3.9%), 124.9(4.1%), 130.3(4.3%) 서비스업생산지수 129.5(3.6%), 137.2(5.9%), 144.7(5.5%) 기록. '11년 4분기 콘텐츠산업생산지수는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하여 131.5, 전체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하여 149.6 기록. 콘텐츠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를 보면 '10년 등락세에서 '11년부터 상승세를 보이다가 4분기에 이르러 하락세로 반전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생산은 '10년 1분기에서 '11년 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1.9%, 1.2%, 2.6%, 4.0%, 3.9%, 3.5%, 5.4%, 4.4%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냄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생산은 '10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하다가 2분기부터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11년 4분기는 전년동기대비 5.7% 성장

<표> '10년 1분기~'11년 4분기 콘텐츠산업 생산변동

업종별	2010년					2011년				
	1분기 (전분기대비) (전동기대비)	2분기 (전분기대비) (전동기대비)	3분기 (전분기대비) (전동기대비)	4분기 (전분기대비) (전동기대비)	2010 (전년대비)	1분기 (전분기대비) (전동기대비)	2분기 (전분기대비) (전동기대비)	3분기 (전분기대비) (전동기대비)	4분기 (전분기대비) (전동기대비)	2011 (전년대비)
콘텐츠산업	124.5 (2.3%) (8.7%)	121.1 (-2.7%) (1.4%)	131.6 (8.7%) (5.7%)	122.5 (-6.9%) (0.7%)	124.9 (4.1%)	124.0 (1.2%) (-0.4%)	127.5 (2.8%) (5.3%)	138.4 (8.6%) (5.2%)	131.5 (-5.0%) (7.4%)	130.3 (4.3%)
콘텐츠 제작업	129.1 (-0.4%) (15.7%)	114.6 (-11.2%) (-0.2%)	144.4 (26.1%) (9.2%)	121.8 (-15.7%) (-6.0%)	127.5 (4.6%)	122.0 (0.2%) (-5.4%)	120.0 (-1.6%) (4.8%)	149.7 (24.7%) (3.7%)	139.1 (-7.1%) (14.2%)	132.7 (4.1%)
콘텐츠 도매업	123.1 (4.1%) (8.9%)	124.8 (1.4%) (4.2%)	122.1 (-2.2%) (8.1%)	125.2 (2.5%) (5.9%)	123.8 (6.7%)	127.6 (1.9%) (3.6%)	131.5 (3.0%) (5.3%)	127.3 (-3.2%) (4.2%)	133.7 (5.1%) (6.8%)	130.0 (5.0%)
콘텐츠 소매업	118.6 (4.3%) (5.5%)	125.1 (5.5%) (3.0%)	124.1 (-0.8%) (4.1%)	118.2 (-4.7%) (4.0%)	121.5 (4.1%)	118.9 (0.6%) (0.2%)	130.7 (9.9%) (4.5%)	126.7 (-3.1%) (2.1%)	120.5 (-4.9%) (1.9%)	124.2 (2.2%)
콘텐츠 임대업	114.2 (-1.5%) (4.9%)	115.1 (0.8%) (2.2%)	116.3 (1.0%) (2.6%)	119.4 (2.7%) (3.0%)	116.3 (3.1%)	116.9 (-2.1%) (2.3%)	118.3 (1.2%) (2.8%)	120.2 (1.6%) (3.4%)	123.8 (3.0%) (3.7%)	119.8 (3.0%)
콘텐츠 서비스업	137.4 (5.0%) (8.4%)	125.8 (-8.4%) (-2.0%)	151.0 (20.0%) (4.5%)	127.7 (-15.4%) (-2.4%)	135.5 (2.1%)	134.4 (5.2%) (-2.2%)	136.7 (1.8%) (8.7%)	168.2 (23.0%) (11.4%)	140.3 (-16.6%) (9.8%)	144.9 (7.0%)
오프라인 서비스업	125.2 (5.4%) (14.4%)	108.3 (-13.5%) (-0.3%)	143.7 (32.7%) (8.9%)	106.9 (-25.6%) (-10.0%)	121.0 (3.3%)	116.1 (8.6%) (-7.3%)	113.1 (-2.6%) (4.5%)	150.5 (33.0%) (4.7%)	123.7 (-17.8%) (15.8%)	125.9 (4.0%)
온라인 서비스업	149.6 (4.6%) (3.8%)	143.3 (-4.2%) (-3.2%)	158.2 (10.4%) (0.7%)	148.6 (-6.1%) (3.9%)	149.9 (1.2%)	152.6 (2.7%) (2.0%)	160.3 (5.0%) (11.9%)	185.8 (15.9%) (17.4%)	156.9 (-15.6%) (5.6%)	163.9 (9.3%)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2.4 (-11.0%) (1.9%)	118.9 (5.8%) (1.2%)	118.9 (0.0%) (2.6%)	131.4 (10.5%) (4.0%)	120.4 (2.5%)	116.8 (-11.1%) (3.9%)	123.0 (5.3%) (3.5%)	125.3 (1.8%) (5.4%)	137.1 (9.5%) (4.4%)	125.5 (4.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3.7 (-10.2%) (-1.1%)	124.5 (20.0%) (2.2%)	123.8 (-0.5%) (1.3%)	120.8 (-2.4%) (4.6%)	118.2 (1.8%)	108.3 (-10.3%) (4.5%)	131.2 (21.1%) (5.4%)	131.5 (0.2%) (6.2%)	127.8 (-2.9%) (5.7%)	124.7 (5.5%)
서비스업생산지수	133.1 (-1.0%) (7.3%)	136.9 (2.9%) (5.6%)	135.8 (-0.8%) (4.4%)	142.8 (5.2%) (6.2%)	137.2 (5.9%)	139.5 (-2.4%) (4.8%)	144.5 (3.6%) (5.6%)	145.2 (0.4%) (6.9%)	149.6 (3.1%) (4.7%)	144.7 (5.5%)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에서 콘텐츠산업에 포함되는 업종만 고려

** 통신업, 컴퓨터·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포함됨

*** 공연산업 외 스포츠산업 및 기타 문화산업 포함됨

1) 콘텐츠 임대업은 만화 임대업 등을 의미

2) 오프라인 서비스업은 오락장 운영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등을 의미

□ 분기별 : 콘텐츠산업 생산은 '08년 4분기 이후 전분기대비 상승세를 보이다가, '09년 4분기부터 '10년 4분기까지 등락을 나타냄. '11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상승세는 '11년 4분기에 이르러 하락세로 반전됨

● '09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전분기대비 상승세가 4분기에 들어 -2.2% 하락.

'10년 1분기에서 4분기까지 전분기대비 전반적으로 등락을 보임. '11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분기대비 1.2%, 2.8%, 8.6%로 상승하다가 4분기에 이르러 전분기대비 -5.0% 하락

- 전체 서비스업생산은 '09년의 경우 상승세를 보이다가 '10년 1분기부터 '11년 1분기까지 일부 등락을 보이면서 '11년 2분기 이후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냄. '11년 4분기 전분기대비 3.1% 상승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09년 1분기에서 '11년 1분기까지 1분기 및 3분기 하락, 2분기 및 4분기 상승의 등락을 나타내다 '11년 2분기부터 상승세를 나타냄. '11년 4분기는 전분기대비 9.5% 다소 높은 상승을 보임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09년 3분기부터 '11년 1분기까지 하락세에서 '11년 2분기부터 상승세로 반전하다가, '11년 4분기는 전분기대비 -2.9%로 약간 주춤

□ 가치사슬 단계별 : 전 분야의 콘텐츠산업생산이 '11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가했고, 2분기에 이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분야별 성장편차를 보임

● 콘텐츠제작업이 '11년 3분기 전년동기대비 14.2% 증가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콘텐츠서비스업은 그 다음으로 9.8% 증가해 '11년 2분기 이후 비교적 높은 성장을 나타냄

- 콘텐츠서비스업에서 온라인서비스업은 전년동기대비 5.6% 증가했으나, 전분기대비 -15.6% 다소 높은 하락을 보임
- '10년 이후 거시적으로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미시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게임 등 온라인 및 모바일과 연계된 콘텐츠 수요가 공급 증대를 견인. 향후 1) 국내 물가 상승 등 경기하락 2) 유럽 금융위기 등 대외 리스크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나, 대내외적으로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요 및 생산증대가 전망됨

※ '09년 3분기 이후 '11년까지 경기상승이 이어지면서 콘텐츠 수요는 온라인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임대 및 직접구매 등 다양한 소비패턴이 나타남. 향후 이러한 콘텐츠는 국내외 불안요소 증대에도 불구하고 수요확대가 전망됨

- 콘텐츠제작업은 '10년 1분기에서 '11년 1분기까지 등락을 보이다가 '11년 2분기부터 성장기조를 나타내고 있으나 '11년 4분기는 전분기대비 -7.1%로 하락추세를 보임
- 콘텐츠도매업은 '09년 3분기 전분기대비 -5.6% 하락 이후 '11년 2분기까지 전반적인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11년 4분기는 전년동기대비 6.8% 증가 전분기대비 5.1% 상승
- 콘텐츠소매업은 '10년 1분기부터 '11년 2분기까지 등락을 보이다가 '11년 3분기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1년 4분기는 전분기대비 -4.9% 하락
- 콘텐츠임대업은 '11년 2분기를 제외하고 '10년 2분기부터 전반적인 상승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11년 4분기는 전분기대비 3.0% 상승
- 콘텐츠서비스업은 '09년 2분기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11년 1분기부터 다소 높은 성장세를 보임. '11년 4분기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비스업의 동반하락을 보이는 가운데 전분기대비 -16.6% 다소 높은 하락을 나타냄